노무식(군 복무시절 대대장) 1차 구술

1. **구술자**: 노무식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박성수
4. **구술일자**: 2011년 8월 10일
5. **구술장소**: 서울 송파구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10분 1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육군 상병 노무현의 군생활

구술자 : 그 후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십이(12)사단 오십이(52)연대 이(2)대대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만났어요. 무슨 약정을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때 이제 어떤 느낌을,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대에 노(盧)가의 성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노무현 대통령 둘이 뿐이기 때문에 좀 귀한 성이 돼서 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일(1)군사령부 부관부에 근무를 했다가 그때 일(1)군사령부에, 사령부가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진해서 '이왕에 군대 생활을 할라면은 그래도 최전방에서 소총을 거머쥐고 해야지, 뭐 행정요원으로 펜대만 거머쥐고 군대 생활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자원해서 아마 오십이(52)연대 이(2)대대로 온 것 같습니다.[1)]

우연히 이래저래 저하고 참 관계가 돼가지고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 정보과에 대대정보과에 상황병이 하나 결원이 있었어요. 그래가 정보장교가 나한테 와가지고, 서 중위였었는데 그 사람도 부산 사람입니다. '아, 저 대대장님, 우리 정보과에 좀 인원이 부족한데 힘이 드니까 한 사람 보충을 해주십시오.' 그래,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몇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상병이라는 사람이 하나 왔다, 그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야. '뭐 그 사람 당연히 좋다면 쓰시

1) 노무현 대통령은 1968년 3월 8일 군번 '51053545'를 받고 입대했다. 처음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육군1야전군사령부 부관부 병역계 행정병으로 복무했으며 1년여 뒤 전방 차출에 자원해 강원도 인제 원통 12사단(을지쌍용부대) 52연대 2대대 소총소대로 배치됐다. 1971년 1월 8일 34개월 복무를 마치고 상병으로 만기 제대했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 정보상황병이 됐습니다. 앞에는 남강이 있고 이쪽에 우리 한국군 측에는 거기에 그 유명한 향로봉, 그담에 우리가 있는 건 건봉산인데 구백십일(911)고집니다. 구일일(911). 겨울에는 그때는, 지금은 뭐 최전방이지만 막사라던지 이런 것이 잘 돼가 있던데 그때는 뭐냐 하면 통나무를 비어(베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풀 같은 거 이런 걸 펴고 그 위에다 그냥 흙을 덮어가지고 통나무집에 살았어요. 방카(bunker) 속에서.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같은 때는 어땠냐하면 물을 길르러 저 칠백(700)미터 아래까지 내려가요. 칠백(700)미터. 칠백(700)미터까지 내려가서 물을 스페어깡[2]으로, 스페어깡 그걸로 가지고 지고 이고와가지고 먹는데, 그때 하여튼 참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과 있으면서 물을 기르러 가면은 대대장실에도 가끔 가다 한번 길러다가 이래 주고 해서 참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했지. 그래도 같은 노가니까 ‘이래도 좀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구나’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제 보통 근무는 주간에는 잠을 자고. 주간에는 전부 잠을 잡니다. 아침부터 잠을 자고, 야간에는 근무를 해요. 아침에 일찍 철수를, 철책선에 철수를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막사에서 잡니다. 근데 대대정보과라는 건 또 뭐냐 하면 보초 서는 병사들이 철책선이고 지피(GP)고 전부 근무를 하는데 계속 그쪽하고 상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정보과하고 작전관은 철책선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낮에 와서 잔다구요. 낮에 자고 밤 되면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갔다가 또 밤새도록 근무합니다. 그때 전기도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또 뭐 등유도 제대로 보급이 안 돼가지고 경유, 경유를 갖다가 깡통 같은데 이런 데 해가지고 심지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일(1)년 지나면 새까맣게 돼가지고 방커 내(內)가 완전히 꺼멓게 돼버려, 완전히 꺼멓게 돼버려요. 봄에 이제 청소를 하는 거지. 꺼멓게 되면 콧구멍이 시커멓고 말이야, 얼굴도 이런 데 보면 막 시커멓고 말이야, 그런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군대생활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칠십(70)년도 사(4)월경에 내가 대대장을 끝나고 왔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 후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내가 중대장들한테도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진해서 대대본부도 안 있겠다, 대대본부도 근무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2) 군에서 사용하던 보조 기름통

육(6)중대로 갔다 말이야. 육(6)중대에 가가지고 또 군사분계선 그 내에 있는 지피(GP)에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철책선에도 근무를 하고 아주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자진해서 아마 근무를 한 것 같다고.[3] 내가 있을 때는 봐준 것도 없는데, 봐준 것도 없는데 대대본부 상황병 그러면 보통 힘 드는 게 아니거든, 그거. 근데 근무하고 그것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더 어려운데 가겠다 해가지고 지피(GP)와 철책선을 근무를 하다가 인제 칠십일(71)년돈가 초에 예편한 걸로 그렇게 내 얘길 들었습니다.

면담자 : 대통령님이 육십구(69)년, 육십팔(68)년에 입대해서 다음 해에 육십구(69)년에 이제 자원을 한 거잖아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십이(12)사단 오십이(52)연대 이(2)대대로 오신 거고.

구술자 : 네, 대대본부, 대대정보, 그러니까 제가 대대정보과에 있었죠.

면담자 : 그때 처음 보신거구요?

구술자 : 네. 처음 볼 때는 뭐 대통령 보니까 병사로서 똥구리(동글동글)해 튼튼하게 잘 생겼더라고요. 우리 같은 노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잘 생겼더라구, 사람이. 남자답게 생겼고. 또 말 바꿔서 얘기하면 이래 '미운 상'이 있잖아, '미운 상'이 있고 '고운 상'이 있는데. '보통' 있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사람은 고운 상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뭐 나는 대단히 좋게 인상을 봤고 옆에 사람들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상대방에게 부담도 안주고 서로 아주 잘 어울리고 서로 잘 도와가면서 그렇게 군대생활도. 옆에는 자기 적이 없더라구.

면담자 : 신고한다고 처음 뵌 건가요? 처음 만났던 건가요?

구술자 : 처음 만나는 건 건봉산 산꼭대기서 만났는데. 처음에 신고를 받았지요, 신고는. 뭐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내가 잘 몰랐지. 이름 보니까 노무현이라고 명패에 써놨더라고. 나중에 인제 대대 정보과에 배치된 후는 가끔 가다 만나지요. 상황실에 내가 가며는 근무하니까 만나고. 또 이제 고 옆에 대대장 숙소가 있는데 풀로 가지고 집을, 거기도 방카로 지어논 게 있어요. 쪼만한(조그만한) 오막살이, 쪼만한 오막살이고. 대대장 혼자 잘 만한, 혼자 잘 수 있을 정도로 방 하나 만들고 그쪽에 주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밥 같은 거, 물 같은 거 디워(데워)가지고 대대장한테 주고 하는 고런 게 있었지요. 뭐 자주는 안하지만 내가 오라 그러지.

3) "나중에 전방 철책중대로 가서 중대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마침내 소대에까지 내려가 철책근무하고 GP근무도 하다가 전역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방일보 2003.11.7 기고, '어려운 일 잘하는 사람이 군생활 잘하는 사람' 참고

'어이 노 상병, 내 방에 좀 와' 그래가지고 '힘들지?'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 '힘들지?' 그러면 '아이, 힘은 드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주라도 한잔 주고 그러지.(웃음)

면담자 : 아, 그때 왔을 때가 상병이었나요? 상병 노무현?

구술자 : 상병, 상병. 상병으로 왔다 상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왜 병장이 안됐냐 하면 그때 월남, 월남전이 벌어졌어요. 월남전이 벌어져 가지고 오십이(52)년도[4]부터 그때 월남에 많은 파병이 쭉 됐는데 육군 병장 티오(T0)를 월남에서 다 잡아먹고 나니까 전쟁하는데 한국 내에는 티오(T0)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병장이 안 된 거지, 노무현 대통령도. 병장이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상병으로 결국 끝났는데, 근데 티오(T0)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이 병장이 되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말이야. 지금 같으면 뭐 병장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예산이야 얼마 안 되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경제적으로 국방예산이 제약을 받고 이러니까 진급을 못 시킨 거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33. 경북 구미 출생
1964. 홍익대 경제학과 학사
1968. 육군대학 졸업
1972. 국방대학원 졸업
1978.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1981.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5.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1950.11. 육군(보병 제7사단 5연대 1대대 중화기중대) 입대
1952.12. 육특(갑)제26호, 하사(상병) 보병학교 입교
1952.06. 소위 임관
1975.01. 준장, 서울대 학군단장
1976.11. 준장, 제1군 작전참모

4) 실제 파병이 이루어진 시기는 1964년부터였음.

1978.10. 소장, 보병 제7사단장

1980.07.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1982.01. 소장, 육군종합행정학교장

1983.11. 육군 소장 예편

1988.04 - 1990.11 재향군인회 중앙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1999. - 노씨중앙종친회 고문(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입대 이듬해인 1969년 전방 차출에 자원해 강원도 인제 원통 12사단(을지쌍용부대) 52연대 2대대 소총소대에 배치되는데 이때 대대장으로 복무했다. 당시 노무현 상병의 첫 보직은 대대 정보과 상황병이었다. 52연대 2대대는 구술자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6월 소위로 임관해 부임한 첫 근무지이기도 했다. 198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이후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